학생 없는 시골학교에 '할머니 신입생'

성인교육 시설, 신입생 자원 부족한 시골의 현실

"고령 학생들 함께 안고 가는 교육 과정 고민해야"

해산 마산초등학교 용전분교에는 최근 88세 할머니가 증손주뻘 아이들과 함께 입학했다.

이 학교 신입생은 겨우 4명. 그나마 2명은 60대, 80대 할머니다.

여수 화양중학교 화양남분교도 신입생 5명 중 자매를 포함한 3명은 60대 후반, 70대 초반 할머니였다.

이농과 출산율 감소 현상에 존폐의 갈림길에 선 시골학교에 고령 입학생들이 어린 학생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25세 이상 학생은 모두 160명이다.

초등학교 60명, 중학교 19명, 고등학교 81명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성인들이 많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초·중학교 성인 학생은 주로 할머니나 한글을 배우려는 다문화 어머니들이다.

시골에서는 도시권과 달리 학력이 인증되는 평생교육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

학교 입장에서는 신입생 1명이 귀한 형편이니 고령 학생의 진입을 점차 허용하는 추세가 생겼다.

전남에서는 이번 새 학기에 6개 초등학교와 22개 분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에 신입생이 없었다.

4개 초등학교와 10개 분교, 1개 중학교와 1개 분교 1개는 신입생이 단 1명이었으며 분교 4곳은 문을 닫았다.

고령 입학생들은 학년을 통합해 진행하는 복식 수업도 면할 수 있게 해준다.

도교육청은 2개 학년을 합쳐 학생이 6명에 못 미치면 복식 수업을 하도록 했다.

화양남분교의 경우 1학년 5명, 2학년 8명, 3학년 3명인데 이번에 입학한 만학도 3명이 없었으면 1학년과 3학년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다만 만학도들과 어린 학생과의 '동행'은 아직 조심스러워 보인다.

서로 할머니뻘, 손주뻘인 동급생끼리 수업 진도를 맞추고 면학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중도 이탈을 막고 어린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통합 교육 과정이 필요해졌다.

박경남 화양남분교 교감은 "학교로서도 사실상 처음 시도하는 일이니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학생, 교사와 협의해 교육 과정을 탄력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인 학생들은 아무래도 소규모 학교에 많이 입학하는 만큼 일대일 맞춤형 수업 등 장기적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며 "방과후 학교, 학력부진 학생 지원 등을 통해 성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린 학생들은 성취도를 높이는 교육 과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85억' 황금박쥐상 절도미수 3인조 추적

CCTV에 셔터 자물쇠 절단 모습 찍혀

경보장치 울리자 도주…경찰, 차량 수배

순금으로 만든 80억원대 황금박쥐 조형물을 훔치려 한 3인조를 경찰이 이틀째 추적하고 있다.

17일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시 35분께 함평읍 황금박쥐 생태전시관에 침입하려 한 남성 3명을 쫓는 중이다.

이곳에는 순금 162㎏, 은 9㎏, 동 13㎏으로 만든 85억원 상당 황금박쥐 조형물이 전시돼 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전시관 입구 셔터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내는 괴한 3명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사설 경비업체 경보장치가 울리자 셔터를 반쯤 올리다 말고 차량을 이용해 허둥지둥 줄행랑쳤다.

범행도구로 챙겨온 공사용 쇠망치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였다.

전시관 측은 일당이 침입에 성공했더라도 황금박쥐 조형물을 훔쳐가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금박쥐상 전시공간 앞에는 또 다른 철문이 잠겨있고 조형물은 망치로 부수기 힘든방탄유리 함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철문과 방탄유리를 잇달아 부수더라도 무게가 570㎏이 넘는 조형물을 경찰이나 경비업체가 도착하기 전 맨손으로 들고 달아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함평군은 한반도에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던 황금박쥐가 1999년 대동면 일대에 서식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 홍익대학교에 상징 조형물 제작을 의뢰했다.

재료로 매입한 순금 시세는 당시 27억원이었지만 지금은 값이 올라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군은 조형물이 도난당했을 경우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하며 이들이 남기고 간 공구에 남아 있을지 모를 유전자(DNA)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함평=박정오 기자 ju363911@

'청년도 동반자' 광주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지난 16일 열린 청년네트워크 워크숍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지역 청년이 소통을 다짐하고 있다. 동구는 청년이 참여하는 분야·세대별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자 실태와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한다. /광주 동구청 제공

영광 예인선 침몰…2명 사망 1명 실종

18㎞ 떨어진 섬에서 선장·기관장 발견…해경, 실종자 수색 중

영광 앞바다에서 풍랑주의보 속에 예인선 침몰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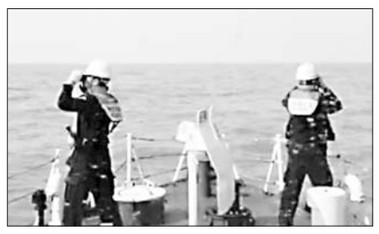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영광군 상낙월도 북서쪽 400m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선적 44t 예인선 G호 권모(73) 선장과 고모(68) 기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16일 오후 3시 43분께 사고지점에서 약 18㎞ 떨어진 상낙월도 큰갈마골 해변에서 권 선장을, 오전 10시 38분께 같은 섬 북서쪽 400m 해상에서 고 기관장을 각각 찾았다.

실종자 3명 가운데 아직 행방이 묘연한 김모(74) 갑판장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날 오전 11시 31분께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와 만지도 사이 해상에서 G호 구명뗏목을 발견했으나 내부는 비어있었다.

G호는 전날 오후 5시 44분께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남서쪽 2㎞ 해상에서 침수 후 침몰했다. 당시 전남 북부 서해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지난 16일 영광 앞바다 사고해역 주변에서 해경의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예인선과 연결된 910t 부선에 혼자 타고 있던 선원 박모(64)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기다리다가 당일 오후 10시 18분께 해경 헬기에 구조됐다.

박씨는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해경은 수색 구역을 10개로 나눠 경비함정 17척, 서해특수구조대, 항공기 10대, 관계기관 선박 8척, 민간구조선 15척을 투입해 실종된 김 갑판장 수색에 나섰으나 17일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G호 선체는 이날 오전 해상크레인으로 인양했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한빛원전 5호기 정비 후 발전 재개

터빈 정지로 불시에 가동이 중단됐던 영광의 한빛원전 5호기가 가동을 재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5호기를 정비한 후 17일 오후 4시 30분에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한빛원전 5호기는 지난 15일 오후 1시 24분께 주 변압기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해 터빈 발전기가 자동 정지했었다. 터빈 발전기가 멈추면서 원전 가동도 자동으로 멈췄다.

점검결과 한빛 5호기는 지난 15일 오후 1시 24분 주 변압기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해 터빈 발전기가 자동 정지하면서 가동이 자동으로 멈췄다.

원전측은 회로 결선을 정상화 한 후 성능시험을 통해 건전성 확인을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다.

한빛 5호기는 지난해 9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뒤 점검을 마치고 같은 해 11월 재가동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응급실서 난동부린 만취 30대 검거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난동을 벌인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로 김모(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 1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병원 응급실에서 15분여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병원 직원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전날 밤 만취 상태로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응급실에서 3시간가량 잠을 자고 일어난 김씨는 "내가 왜 병원에 있느냐"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기사제보 227-0000

EDEN MEDICAL HOSPITAL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병원 에덴병원

최신 하이푸 도입– 자궁을 보존하는 자궁근종, 선근증 비수술치료
제 1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 여성민우회 "아름다운 병원" 선정
전국병원 의료기관 중 부인과 수술비가 가장 낮은 1위 병원

의료진 안내

산부인과 대표원장	허 정 일
산부인과 전문의	진 섭
산부인과 전문의	김 성 이
산부인과 전문의	양 관 주
산부인과 전문의	이 해 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 병 룡
산부인과 전문의	김 용 식
산부인과 전문의	임 종 찬
산부인과 전문의	조 민 형
산부인과 전문의	김 혜 정
산부인과 전문의	홍 선 웅
산부인과 전문의	김 현 정
내 과	정 혜 경
유방·갑상선외과 전문의	박 지 영
영상의학과 전문의	홍 승 정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 인 정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 영 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 보 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국 영 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강 명 우
통증의학과 전문의	전 규 영
통증의학과 전문의	박 윤 희
행정사무국 부장	박 윤 식

진료과목
- 산부인과
- 내 과
- 유방 · 갑상선외과
- 영상의학과
- 소아청소년과
- 임상병리과
- 건강검진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170번길 10 (두암동)
전화 260-3000 팩스 267-0550